

천도교 의례의 변용과 특성:시일식을 중심으로*

고 병 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요 약」

이 글은 천도교 의례의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와 특징들이 한국 신종교 의례 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관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1905년의 대고천하(大告天下) 사건 이전은 제1기, 1945년 이전은 제2기, 1945년 이후는 제3기에 해당된다. 다시 제1기는 각각 최제우와 최시형 시기, 제2기는 각각 손병희와 박인호의 시기, 제3기는 해방 이후의 시기로 설정되었다. 특히 제2기 이후의 천도교 의례는 정기적인 집단 의례인 시일식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제2장에서는 최제우와 최시형 시기의 의례들을 검토하면서 천도교 의례가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손병희와 박인호의 시기, 그리고 해방 이후의 시기에 의례의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으로 개혁되었고 정착되었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천도교 의례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는 천도교 의례의 위상을 한국 신종교의 의례 문화사에서 간략하게 평가하였다.

그동안 천도교는 동학혁명, 진보회와 일진회, 3·1운동 참여, 친일 문제, 근대성 등 다방면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관련 연구도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의례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글이 천도교 의례 전반과 특징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 신종교 의례 문화사에서 천도교 의례의 위상을 파악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핵심 주제어 : 천도교, 의례의 변용, 의례의 특성, 유불선과 기독교, 시일식, 일상생활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9-AS0071).”

I. 들어가면서

본고의 목적은 천도교 의례가 역사적으로 변용된 모습을 검토하면서 천도교 의례의 특성을 해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특성이 한국 신종교 의례 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천도교는 동학혁명, 진보회와 일진회, 3·1운동 참여, 친일 문제, 근대성 등 다방면에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관련 연구도 상당히 진척되었다. 그렇지만 의례를 기준으로 볼 때, 기존의 연구 경향은 교리, 신관, 동학혁명 등이나 다른 종교와의 또는 근대성과의 관련성 등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¹⁾ 천도교 의례 관련 연구들도 몇 편 있지만²⁾, 현행 의례 자체를 소개하거나 특정 의례의 의미를 밝히고 있을 뿐 의례를 역사적으로 검토하거나 역사적인 특징을 추출하여 의례 전반의 이해를 도모한 연구는 없다.

종교와 문화를 이해할 때 의례 연구는 필요하다. 의례가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에 유교의례 이외의 의례들이 음사(淫祀)로 규정된, 특히 18세기 후반과 19세기 후반에 들어온 기독교의 영향으로 내면적 신앙의 순수성이 강조된, 그리고 그 속에서 종교의례가 비합리적 영역에서 이해된 역사가 존재한다. 종교학자들이 의례를 사상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이다. 이런 맥락에서 ‘의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주장되기도 한다.³⁾ 천도교 의례의 변용과 특징을 최초로 다루는 본 연구가 천도교 의례 자체, 나아가 한국 신종교의 의례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천도교의 의례가 연구자들에게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관심의 부족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자료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수운행록(水雲行錄)』(1865), 『최선생문집도원기서(崔先生文集道源記書)』(이하 도원기서, 1879), 『대선생사적(大先生事蹟)』(1900) 등을 통해

1) 다른 종교와 관련된 부분은 주로 석사논문에서 나타난다. 서정희, “東學思想의 近代의 性格에 관한研究”, 東國大學校, 1986; 김서령, “東學에 나타난 샤머니즘 原理”, 誠信女子大學校, 1987; 문성목, 『東學思想에 나타난 近代性 研究』, 國防大學院, 1987; 이승은, “東學思想에 內在한 儒敎的 要素의 分析的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1996; 이찬구, “東學의 하날님(天主)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2001; 김선하, “東學思想의 道敎的 要素에 관한 研究”, 圓光大學校, 2001 등. 근대성과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건호, 「천도교 개신기 ‘종교’로서의 자기 인식」(『종교연구』 38, 2005); 고건호, 「동학의 세계관에 나타난 전통과 근대의 변증법: “근대”의 경험과 동학·천도교」(『동학학보』 9, 2005) 등.

2) 임운길, 「東學·天道敎의 의례와 수행」, 『동학연구』 4-1, 한국동학학회, 1999; 박광수, 「한국 신종교(천도교, 증산교, 원불교)에 나타난 신화, 상징, 의례 체계의 상관성에 관한 비교연구」, 『종교연구』 26, 한국종교학회, 2002; 이선영, 「천도교 수행의 실제-呪文수련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14, 한국신종교학회, 2006; 정혜정, 「동학 의례와 守心正氣 수행의 儒, 佛的 이해」, 『한국사상과 문화』 34,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3) 강돈구, 「종교의례 연구의 경향과 과제」, 『종교연구』 17, 1999, 3-6쪽. ‘의례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의례학(ritual studies)’ 분야의 연구 성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도교 초기 의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본교역사」(1910-), 『천도교서』(1920.4.), 『侍天敎歷史』(1920.7.), 『천도교회사』(1930), 『천도교창건사』(1933), 『동학사』(1938) 등에서도 의례 관련 기록들이 남아있다. 또한 「종령(宗令)」이나 『천도교의절』 등을 통해 근현대의 의례 관련 기록을 검토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초기 의례와 관련하여 주로 최제우의 참형 직후에 박하선(영해 접주)과 최세조(조카) 등이 편찬한 『수운행록』, 최시형이 차도주(次道主)로 임명한 강수(姜洙) 등이 『수운행록』을 바탕으로 최시형 관련 부분을 추가한 『도원기서』, 그리고 『수운행록』을 바탕으로 한 작자 미상의 『대선생사적』 등을 검토할 것이다. 이후의 다른 자료들은 『수운행록』, 『도원기서』, 『대선생사적』을 바탕으로 편술된 것이기 때문이다.⁴⁾ 그리고 근대 이후의 자료는 주로 『종령』과 『천도교의절』을 참조할 것이다.⁵⁾

본고에서 천도교 의례는 제3기로 구분한다. 제1기와 2기의 분기점은 1905년의 대고천하(大告天下) 사건이고, 제2기와 제3기의 분기점은 1945년 8·15해방이다. 이 가운데 제1기는 최제우와 최시형이 활동했던 시기로 다시 구분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의례의 형성기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2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제2기는 손병희와 박인호 이후의 시기로서 의례의 개혁기, 또는 현대 의례의 전신이 성립되는 시기에 해당되고, 제3기는 해방 이후의 시기로서 의례의 정착기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3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 천도교 의례의 특징을 해명한 후, 이를 토대로 5장에서 천도교 의례의 위상을 한국 신종교의 의례 문화사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II. 전통적 의례의 형성

최제우(1824-64)는 1860년 4월의 종교체험[庚申大覺] 과정에서 상제에게 부도(符圖), 즉 이름이 선약(仙藥)이고 형상이 태극과 궁궁(弓弓)이라는 영부를 받는다.⁶⁾ 그리고 약 1년 동안 치성(致誠, 수련)을 하면서 「용담가」, 「처사가」, 「교훈가」, 「안심가」, 두 건의 주문, 강령

4) 윤석산, 『수운 최제우』, 모시는사람들, 2006, 281-282쪽; 김상기, 「자료: 水雲行錄 - 원제 水雲文集 -」, 『아세아연구』 7-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4(이후 『수운행록』); 「崔先生文集道源記書」,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7, 사운연구소, 1996(이후 『도원기서』); 「大先生事蹟」,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7, 사운연구소, 1996(이후 『대선생사적』). 현재 『도원기서』는 『초기동학의 역사』(윤석산 역주, 신서원, 2000.)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음.

5) 「종령」에 대해서는 『天道敎會 宗令存案』(이동초 편저, 모시는 사람들, 2005)을 위주로 하되, 『天道敎宗令集』(조기주 편저,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1983)을 참조하였음.

6) 『수운행록』, 179쪽; 『도원기서』, 10-11쪽. 『동경대전』의 「포덕문」(19-20쪽)에서 영부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된다[受我此符 濟人疾病]. 부(符)는 진시황과 한무제가 불로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수천명의 동남동녀를 보냈다는 전설의 세 산인 三神山의 不死藥을 의미한다.

주문(降靈之文), 검결(劍訣), 고자주문(告字呪文) 등을 집필하고⁷⁾ 1861년 6월부터 ‘신유포덕(辛酉布德)’을 시작한다.⁸⁾

신유포덕 이후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포덕의 주요 수단이었던 21자주문이었다. 당시에 무시(無時)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장생(長生)의 영부심(靈符心)’을 얻는 방법’으로 이해되었다고 한다.⁹⁾ 또한 1863년 12월 체포 당시 최제우가 순찰사에게 ‘주문을 외우면 약 없이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대답한 것처럼, 치병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이해되었다.¹⁰⁾ 신유포덕 과정에서 식고(食告)와 출고(出必告)·입고(入必告) 등 효(孝) 관념에 근거한 새로운 의례들도 만들어졌다.¹¹⁾

포덕으로 교인들이 증가되면서 최제우는 포덕식(布德式), 입도식(入道式), 치제식(致祭式), 천제(天祭), 제수식(祭需式) 등의 의례를 등장시켰다.¹²⁾ 포덕식은 전도인이 입도 희망자에게 의관을 갖추어 예로써 도를 전하는 의례였다. 입도식은 입도할 때 동쪽 혹은 북쪽을 향해 위패를 세우고 분향과 사배(四配) 후에 입도자가 초학주문을 하는 것으로¹³⁾, ‘개과천선하여 영원히 한울님을 모신다[永侍는 맹세]’의 의미가 담긴 의례였다.¹⁴⁾ 치제식은 입도 후에 위패를 세우고, 사배하고 독축(讀祝)한 후에 강령주문과 본주문을 읽는 의례였다. 제수식은 도통(道統)의 전수 의례, 산제[天祭]는 검무 또는 강도 등을 포함한 의례였다. 특히 산제는 초기 동학의 주체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분배 보급하고 학습하던 공동의 장이었다고 한다.¹⁵⁾

1863년 6월에는 접주제(接主制)가 가동되면서 개접(開接)이라는 의례가 등장하였다. 개접

- 7) 『도원기서』, 11-12쪽. “一以作呪文二件 一件先生讀之 一件傳受於子侄 又作降靈之法 . . . 所授以教者 一曰食告出必告入必告.” 『수운행록』 (179쪽)에는 法制呪文과 함께, ‘선생’이 읽는 주문과 ‘子侄[자손]’에게 전해주는 주문이 나타난다.
- 8) 『수운행록』, 179쪽;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18-19쪽(‘辛酉布德’ 부분).
- 9) 이돈화, 위의 글, 19쪽. 주문은 『동경대전』의 「포덕문」 (19-20쪽)에서 ‘인간을 가르쳐 내[한울]를 위하는 것[受我呪文 教人爲我]’으로, 『동경대전』의 「논학문」 (33쪽)에서 ‘지극히 한울님을 위하는 글[至爲天主之字]’로 표현된다. 『대선생사적』 (170쪽)에서도 21자주문이 포덕의 수단으로 표현된다.
- 10) 『도원기서』, 36쪽. “巡使問曰汝何聚黨濁亂風俗 先生答曰教人誦呪 勿藥自效.”
- 11) 『도원기서』, 14쪽.
- 12) 표영삼, 『동학 1』, 통나무, 2004, 127-9쪽; 윤석산 주해, 『동경대전』, 동학사, 1996, 291-292쪽. 윤석산은 입도식과 치제식을 ‘포덕식을 치르는 과정’이라고 이해한다.
- 13) 주문은 先生呪文과 弟子呪文으로 구분된다. 선생주문은 降靈呪文(至氣今至四月來)과 本呪文(侍天主今我長生無窮萬事知), 제자주문은 초학주문(爲天主願我情永世不忘萬事宜), 강령주문(至氣今至願爲大降), 본주문(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로 구분된다(『동경대전』 「呪文」).
- 14) 『도원기서』, 30쪽. “初有入道 有一番致祭 改過遷善 而永侍之重盟 有祝文者 所謂知蓋載之恩照臨之德也 無他道理 只在信敬誠三者也.”
- 15) 박영학, 『동학운동의 공시구조』, 나남, 1990, 157-159쪽; 윤석산, 앞의 책, 2004, 147쪽. 제수식에는 예주(醴酒), 떡, 국수, 물고기와 과일 종류(魚物果種), 저미어 말린 고기[脯], 튀각, 채소, 향과 축이 사용되었다. 고기는 꿩고기가 주로 사용되었고, 돼지고기도 간혹 사용되었다.

은 각 접주가 동학도들을 동원하여 용담에 와서 수행을 하며 최제우의 강론을 듣는 모임이었다.¹⁶⁾ 최제우는 1863년 10월 28일에 생일 축하객들과 ‘홍비가’로 강론 모임을 가진 후 ‘21자주문을 읊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스승의 가르침으로 예(禮)와 의(義)가 나타나야 한다’는 논리로 연원(淵源)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¹⁷⁾

한편, 초하루와 보름에 산에서 지낸 천제(天祭)에는 칼춤과 칼노래가 병행되었다.¹⁸⁾ 최제우의 심문 기록에 의하면, 검가(劍歌)는 서양인(洋人)의 침입에 대한 천신(天神)의 계시였고, 동시에 치병을 위한 것이었다.¹⁹⁾ 최제우는 사람들에게 강도(講道)를 하면서도 목검으로 검무를 추고 검가를 불렀다고 한다.²⁰⁾ 일제하 사회주의 이론가인 계봉우(1880-1959)는 1895년 전후에 부적을 통한 치병의례와 칼춤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²¹⁾

천도교의 제2대 교주인 최시형(1827-1898)은 1863년 최제우의 사형 이후, 경북 지역에서 은거하다가 1866년 10월 28일에 강수, 박춘서와 함께 등과 함께 1867년 3월부터 매년 최제우의 탄신제(誕辰祭)와 기제(忌祭)를 모신다는 내용의 통문(通文)을 각 처에 발송하였다.²²⁾ 최제우가 대규모의 탄신제를 원하지 않았고²³⁾, 유족도 교인들과 연락이 소원한 상황에서 대규모의 탄신제와 기제는 새로운 집단의례였다. 최시형은 1872년 5월 12일에 최제우의 큰 아들 세정(世貞), 그리고 1873년 12월과 1875년 1월에 각각 최제우의 부인과 둘째 아들[世淸]이 사망한 이후 전적으로 기제와 탄신제를 담당하게 되었다.²⁴⁾

최시형은 이전의 의례인 49일 기도, 입도식, 천제, 개접 등도 지속하였다. 가령 최시형은 강수, 박춘서와 함께 이필제를 진인(眞人)으로 간주하여 1871년 3월 10일 영해민란(寧海民亂)에 참여하였는데²⁵⁾ 이 때 약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천제가 진행되었다.²⁶⁾ 그리고 영해

16) 『수운행록』, 180쪽; 『도원서기』, 24쪽.

17) 『수운행록』, 181쪽; 『도원기서』, 30쪽. “先時先生布德之初次第道法有二十一字而已 流言而修之流呪而誦之者太 非聖德之敬傳也 是故師無受訓之師則禮義安效 自古師~相授者自在淵源 則豈以誤傳敢違聖德也哉” 그러나 순찰사의 심문 과정에서 최제우는 ‘敎人誦呪則勿藥自效’이라고 응답하면서 주문의 효험을 중시하였다(『도원기서』, 36쪽). 한편, 윤석산은 이 모임에 대해 ‘강도회(講道會)’로 표현한다(『윤석산, 앞의 책, 2004, 148쪽).

18) 박맹수, 「崔時亨의 宗教史的 位置」, 『한국종교사연구』 5, 한국종교사학회, 1997, 101쪽.

19) 『日省錄』 高宗 甲子(1864) 二月 二十九日 庚子.(윤석산, 『수운 최제우』, 146-147쪽 재인용).

20) 『日省錄』 高宗 甲子 二月 二十九日 庚子; 『備邊司謄錄』 (윤석산, 『수운 최제우』, 147쪽 재인용.)

21) 계봉우, 「꿈속의 꿈」, 『北愚 桂奉瑬 資料集』 (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93쪽.

22) 『도원기서』, 48-49쪽. 계는 1866년 말경부터 시작되었다. 1868년에 강수의 부친인 강정(강정)이 계장(稷長)을 맡았다(같은 책, 49쪽). 최시형의 발론에 대해 『천도교서』에는 “明年으로부터 吾等은 先師의 祈禱와 享祀를 爲하여 祭를 設코저하노니 衆意-如何오하신대 一般이 皆感服하더라”라고 표현되었다.

23) 『도원기서』, 27쪽.

24) 『도원기서』, 82-83쪽; 87-93쪽; 96쪽.

25) 『도원기서』, 51-58쪽; 연갑수, 「이필제 연구」, 『동학학보』 6, 동학학회, 2003.

민란 직후인 1871년 9월에 입도식과 49일기도, 1872년 4월에 49일기도를 행하였다.²⁷⁾ 이미 최시형은 1864년에 교인들에게 사계절마다 한 번씩 49일 기도를 행하게 하였다.²⁸⁾ 1872년 10월 태백산 적조암(寂照庵)의 사례를 보면, 49일 기도는 각자가 좌석을 정하고 염주를 들고 의관을 정제하고 밤낮으로 2-3만 번 정도 주문을 읽은 후, 며칠 동안 부도(附圖)를 익히는 형식이었다.²⁹⁾ 또한 개집에 대해서도 1878년 7월 25일 최시형은 그 이치를 ‘하늘에서 운(運)과 명(命)을 받는 것’으로 설명하였다.³⁰⁾

최시형은 기제과 대규모의 탄신제 이외에도 설법제(設法祭), 구성제(九星祭), 인등제(引燈祭) 등의 의례들을 신설하였다. 또한 의례의 간소화도 시도하였다. 가령 1875년 8월 치제(致祭)에서 ‘강화지교(降話之敎)’를 이유로 이전과 달리 황육(黃肉, 소고기) 등 고기 일체와 생선을 빼고 청수 한 그릇만 사용하였다.³¹⁾ 이러한 제수(祭需) 경비의 절약과 제사 절차의 간소화 이후 일반 신자들의 의례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한다.³²⁾

설법제는 1875년 10월 탄신제에 처음 등장하였다. 의례는 이전처럼 축문을 지어 천주에게 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선도식의 관복이 새로 등장하였고, 초헌·아헌·종헌·대축(大祝)·집례·봉향(奉香)·봉로(奉爐)를 담당하는 별도의 제관(祭官)들이 규정되었다.³³⁾ 관

26) 『도원기서』, 60쪽. 이필제가 스스로를 동학교도라고 인정하지는 않았다(박맹수, “崔時亨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6, 57-66쪽). 그러나 이필제가 단(檀)을 설치하여 의례를 주도했다는 것은 최소한 그가 동학 의례를 알고 있었거나 당시 천제가 익숙한 의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7) 『도원기서』, 71-73쪽; 80-82쪽. 유인상에 대해서는 유교의 덕목인 인·의·예·지의 성(性)을 알고 사리(事理)의 당연함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불연(其不然)과 기연(其然)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었다.

28) 박인호, 『천도교서』, 천도교중앙총부, 1921, 59쪽.

29) 『도원기서』, 83-86쪽. 주지(主僧)는 이 부도가 ‘造化之符’이며 이전에 그 부도(符圖)를 보고 ‘得驗之事’가 있었으니 그것을 잘 보관하여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두 사람이 佛前에 拜謁하는 꿈을 꾸었다’는 주지의 말에 강수가 ‘仙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지금 보니 부처의 형상과 같다’고 답변하였다. 이 부분을 통해 ‘부도’가 일종의 ‘부적(符籙)’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0) 『도원기서』, 101-102쪽. 당시 강수는 ‘용담(龍潭)의 즐거움을 재흥시키고, 구미산(龜尾山)의 놀이에서 운(運)을 여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시형은 정선의 유인상 자택에서 파접(罷接, 1863년) 이후 1878년에 개집(開接) 활동을 재개하였다. 개집은 교도들이 일정기간 일정장소에 모여 교리를 문답하고 수련활동을 벌이던 일종의 수련회이다(박맹수, 위의 글, 1997, 103쪽).

31) 『도원기서』, 93-4쪽; 崔疏鉉, 『侍天敎歷史』, 侍天敎總部, 1920, 87-8쪽. 최시형은 1871년 49일 기도를 할 때 청수 한 그릇만 놓았을 정도로 이미 강한 청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박인호, 앞의 책, 65쪽).

32) 박맹수, 앞의 글, 102쪽.

33) 『도원기서』, 95-96쪽. “以十八日來會于道主家 則當以其日行祭矣 寅常及聖文來到 俱製冠服 以仙道創始 洎作祝文告于天主 其時參祀人祭官分定.” 당시 초헌이 최시형[道主人], 아헌이 강수[道次主]였다는 점, 최시형이 ‘명교(命敎)’를 이유로 자신[崔慶翔]과 강수와 유인상의 이름을 각각 시형

복은 크기와 모양 면에서 유생들의 관복과 달리 도가(道家)의 관복을 모방한 것이었다.³⁴⁾ 이후 치성(致誠)보다 '설법제'라는 명칭이 계속 등장한다.³⁵⁾ 가령 최시형은 1875년 11월, 1876년 4월, 1879년 윤3월에도 동일한 형식으로 설법제를 진행하였다.³⁶⁾

구성제는 1877년 10월 3일에 처음 등장한다. 형식은 축문을 짓고 제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설법제와 유사하였다. 이 형식은 동년 10월 16일의 구성제에서도 동일하였다. 1877년 당시 최시형은 구성제가 '구성(九星)이 구주에 응(應)하는 이치이며 천지인을 합친 삼재(三才)의 이치라고 설명하였다.³⁷⁾ 구성제는 천제로, 또는 설법제를 구성[天道]과 구주[地理]에 상응시킨 제사로 이해된다.³⁸⁾ '구성'이 도교의 태일(太一)이 관장한다는 구궁(九宮)과 같은 의미라고 볼 때 이러한 이해는 타당하다.³⁹⁾ 그렇지만 1879년에도 설법제가 구성제와 별도로 진행되었음을 볼 때 구성제는 설법제와 다른 의미의 의례라고 판단된다.⁴⁰⁾

인등제는 1879년에 처음 등장한다. 최시형은 1879년 윤3월 '최제우의 몽교(夢敎)'을 받고⁴¹⁾, 동년 4월에 그 몽교(夢敎)를 근거로 인등의 설법(引燈之設法)'을 행하였다. 그리고 동년 7월 이전에 두 차례, 10월과 11월에 각각 두 차례, 1880년 1월에 한 차례의 인등제를 행하였다. 나아가 동년 1월 28일과 2월 5일에는 김정호와 김현덕이 인등제를 행하였고, 4월 5

(時亨), 시원(時元), 시헌(時憲)으로 바꾸었다는 점, 접주를 새로 임명했다는 점 등을 통해 보면 설법제는 최시형의 교권 확보의 성격을 지닌 의례였다. 최시형은 이 때 모은 이백여 금을 설법제(說法祭)와 신접(新接) 관리를 위해 절반씩 사용하였다.

34) 최유현, 『侍天敎歷史』, 侍天敎總部, 1920, 88쪽. “師自製法冠法服 竝行說法祭 蓋倣道家衣制 而稍變者也 其冠服式樣如左 法冠四圍三疊 中蓋正圓 前後葉圓 · · · 法服正斜幅 前五後四 袂身直徑一尺三寸 · · · ”

35) 위의 책, 89-90쪽. 설법제란 제사에 최시형의 설법이 곁해지는 의례를 말한다(박맹수, 앞의 글, 102쪽).

36) 『도원기서』, 96-97쪽; 朴晶東, 『侍天敎宗釋史』, 侍天敎本部, 1915, 63쪽.

37) 『도원기서』, 97-101쪽. “是日主人與時元相議曰 九星者以應九州之理也 故茲以九星之理創爲九星之祭 · · · 天道與地理相合之理也 則人於其間亦有三才之理.” 그러나 『시천교역사』에서는 1876년에 구성제가 등장한다(9명의 헌관, 12명의 執事). 그리고 1877년 10월 16일의 구성제 이후에 안상목을 계장으로 조직된 구성제(九星契)가 등장한다(崔瑠鉉, 『侍天敎歷史』, 侍天敎總部, 1920, 93-5쪽). 『도원기서』의 1877년 10월 16일 구성제 관련 기록에 종헌관 3명(안상목 포함)의 직책이 계장(契長)이었고, 당시 '계안'을 '修成'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천교역사』의 기록은 신빙성이 있다.

38) 박맹수, 앞의 글, 102쪽; 표영삼, 『동학 2』, 통나무, 2005, 83쪽.

39) 『조선왕조실록』, 燕山 2卷 元年 正月 11日 (乙未) 001; 燕山 44卷 8年 5月 1日 (壬申) 002. 九宮은 천봉성(天蓬星)·천예성(天芮星)·천형성(天衡星)·천보성(天輔星)·천금성(天禽星)·천심성(天心星)·천주성(天柱星)·천임성(天任星)·천영성(天英星)이라는 九星을 의미한다.

40) 최유현, 앞의 책, 100쪽.

41) 『도원기서』, 107쪽; 박정동, 앞의 책, 63쪽. 당시 김치운의 집에서 행한 제사는 『도원기서』에 '致齊', 『시천교종역사』에 '設法祭'로 기록되어 있다.

일에는 각 접에서 인등제를 행하였다.⁴²⁾ 인등제의 절차는 ‘초헌·아헌·종헌, 참석 교인의 입장, 일동 심고(心告), 집례자의 진설·예폐·예수, 주문 49회, 기도문 낭독, 등근 등(球燈)을 올리고 천담(天冊)에 가서 축원(道主), 예폐를 올리고 천담을 향해 4배(헌관), 주문 49회(집례자), 천담을 향해 참배하며 참석자의 수를 알림(집례자), 일동 심고’ 등이었다.⁴³⁾ 인등제는 구성제에 ‘인등’ 즉 불을 켜는 의식을 추가한 의례로서, 인등에 49일 수련의 상징적 의미를 결합시켜 일반 교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해된다.⁴⁴⁾

설법제, 구성제, 인등제의 각 절차를 볼 때 세 가지 의례가 전혀 이질적인 것은 아니었다. 가령 인등제에서도 설법이 행해졌다. 그리고 세 가지 의례에서 축문을 짓고 제판을 구성하는 것은 동일하였다. 다만 앞서 지적했듯이 세 가지 의례에 부여된 의미가 달랐던 것이다. 이러한 집단 의례는 기제나 탄신제와 함께 관변측의 탄압이 심했던 18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천도교의 조직 유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즉 최시형은 집단 의례를 통해 흩어진 교인들과 연계하며 교권 장악과 조직 재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정 확보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최시형은 1880년대에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목판으로 발간·보급하였는데, 이는 천도교의 기본 의례들이 경전을 통해 교인들에게 정식으로 파급되었음을 의미한다.⁴⁵⁾

III. 의례의 근대적 개혁

최시형이 1898년 6월에 처형된 이후, 손병희(1861-1922)는 김연국과 손천민을 제치고 1900년 4월에 경상도 풍기(豐基)의 설법식(設法式)에서 교주로 취임하였다.⁴⁶⁾ 그리고 박인호의 찬성을 얻어 1901년 3월 ‘문명의 영수’가 되기 위해 10년 예정으로 도일하였다. 그리고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일본유학생단, 갑오경장(甲午更張)이나 민비시해사건(閔妃弒害事件)에 연

42) 『도원기서』, 104-110쪽. 윤3월 1일 영월에서 최시형은 삼경쯤 비몽사몽(非夢似夢) 간에 최제우를 만난다. 검은 관을 쓰고 푸른 옷을 입은 최제우는 4-5명의 동자들에게 시중을 받았고, 삼층대(三層臺)의 상대(上臺)에 앉았으며 그 뒤에 학발(鶴髮)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다. 최제우는 최시형을 북문, 강수를 남문, 유시헌을 동문, 다른 한 사람을 서문에 제수(除授) 한 후, 상제와의 논의가 아직 끝나지 못해 급히 돌아간다.

43) 『侍天教宗釋史』 (1915),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9, 사운연구소, 1996, 63-65쪽; 최유현, 앞의 책, 51-52쪽; 윤석산 역주, 『초기동학의 역사』, 신서원, 2000, 264쪽.

44) 박맹수, 앞의 글, 102쪽.

45) 『동경대전』에서 동경은 ‘동학의 경전’, 대전은 ‘모아놓았다’는 의미이다. 『용담유사』에서 용담은 경복 월성군 현곡면 구미산 기슭에 있는 연못으로 최제우가 종교경험을 한 곳이며 유사(遺詞)는 ‘[제자들에게] 남겨 높은 노래’이다. 최제우의 저술들이 판본으로 정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口誦說, 原本說, 양자를 통합한 折衷說이 있다(윤석산, 앞의 책, 2006, 180-189쪽).

46) 『본교역스』, 『천도교회월보』 1913년 10월호, 16쪽; 『천도교회월보』 1914년 11월호, 18-19쪽.

루된 망명인물들과의 교류, 민회[進步會] 결성 등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였다.⁴⁷⁾ 그러나 진보회를 통합한 일진회가 1905년 11월 5일에 ‘보호청원선언’을 발표하고, 동월 17일에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국내에서 천도교[동학]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는 상황이었다.⁴⁸⁾

이 상황에서 손병희는 1905년 12월 1일부터 『제국신문』과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근대 종교로서 ‘천도교’의 출현을 광고하였고⁴⁹⁾, 1906년 1월에 귀국하여 2월에 대도주와 중앙총부 중심의 ‘천도교대헌’을 발표하면서⁵⁰⁾ 점차 과거의 연비(聯臂)에 우선한다는 조직의 정비(2월)⁵¹⁾, 교서(敎書) 발간(2월 이후)⁵²⁾, ‘세계 종교들의 표준’인 교당 건축(4월 이후)⁵³⁾ 등을 추진하였다. 동시에 손병희는 기존의 의례를 정비하고 새로운 의례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의례 개혁’을 시도하였다.

손병희 시기에는 이전에 비해 많은 새로운 의례 용어들이 등장한다. 물론 이전의 의례들이 단순히 부정된 것은 아니었다. 가령 청수, 주문, 식고와 출고와 입고⁵⁴⁾ 등은 여전히 최제우에서 비롯된 천도교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다.⁵⁵⁾ 가령 1908년 1월에는 최제우가 정한

47) 『천도교회월보』 1915년 1월호, 20-21쪽; 『천도교회월보』 1915년 2월호, 16-19쪽; 『황성신문』 1904. 4.12. 잡보 「東匪處律」; 6.24. 잡보 「義州匪徒」 등.

48) 최기영, 「한말 동학의 천도교로의 개편에 관한 검토」, 『한국학보』 20-3, 일지사, 1994, 111-116쪽. 이용구는 보호청원문제를 손병희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한다(『천도교회월보』 1915년 3월호, 23쪽).

49) 오지영, 『동학사』, 대광문화사, 2002, 201-205쪽; 고건호, 「천도교 개신기 ‘종교’로서의 자기 인식」, 『종교연구』 38, 한국종교학회, 2005, 231-250쪽.

50) 『천도교회월보』 1915년 3월호, 23쪽; 「천도교대헌」, 1906/1911, 1-135쪽(최기영·박맹수 편, 『한말 천도교 자료집』 2, 국학자료원, 1997).

51) 「종령」 제7호, 「종령」 제8호, 1906.2.10; 「종령」 제13호, 1906.2.27. 六任, 1司4觀(玄機司, 理文觀, 典製觀, 金融觀, 庶應觀) 조직, [대·중·소]敎區制 등. 지시는 대도주 승인을 거친 각 長 명의의 宗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중앙총부를 중심으로 오세창, 권동진, 양한묵 등의 개화파, 이용구와 송병준 등 일진회파, 김연국 등의 비(非)개화파가 공존하게 되었다.

52) 조기주 편저, 『천도교종령집』,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1983, 119쪽. 1906년 2월 김연국 등 5인이 敎書 편찬원으로 선정되었고, 5월 普文館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1906년에 『천도교대헌』, 『天道敎志』, 『天道敎典』, 『天道太元經』, 『準備時代』, 『敎友自省』, 1907년에 『東經演義』, 『東經大全』, 『大宗正義』, 『觀感錄』, 『三壽要旨』, 『聖訓演義』, 『天約宗正』 등이 간행되었다. 교회의 略史인 『天道敎志』와 『天約宗正』에는 교권승계가 서술되었고, 『大宗正義』에는 기본교리가 ‘人乃天’으로 정리되고 손병희 시기가 천도교 발전의 시기임이 강조되었다(최기영, 「한말 동학의 천도교로의 개편에 관한 검토」, 『한국학보』 20-3, 일지사, 1994, 120쪽). 한편, 이 과정에서 손병희는 ‘성사(聖師)’로 표기되었으며, 이는 대신사·신사와 함께 1908년 4월경에 중앙총부의 공의로 추존되었다(『천도교회사초고』, 520쪽).

53) 「종령」 제20호, 1906.4.17; 「종령」 제36호, 1906.8.3; 「종령」 제25호, 1906.5.1.

54) 「종령」 제112호, 1914.9.11. 1914년부터 식고 이외는 심고[諸般心告]에 포함됨.

55) 박인호, 앞의 책, 21쪽, 51쪽. “大神師·修道의 節을 定하실 새 清水를 奉奠하고 天主를 念하며 呪文을 誦하며 寢食必告하며 出入必告하고 無惡無貪無淫으로써 心箴을 삼으시다.” 이는 천도교에

“出告 入告와 食告 寢告를 必以 定八字 爲祝願하여 無惑弛心하라”는, ‘49일 기도식을 청수와 주문으로 하라’는 내용의 종령이 발표되었다.⁵⁶⁾ 그렇지만 중앙총부 설치 이후, 의례에 음식이나 과실의 제전(祭奠)을 폐지하고 ‘천지만물이 모두 물 하나로써 되었다’는 의미로 청수만을 두게 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손병희는 새로운 의미 부여를 통해 전통적 의례를 개선하는 ‘개혁(reform)’을 시도하였다.⁵⁷⁾

손병희가 정비했거나 신설한 의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06년 2월의 전교식(傳敎式), 입교식, 치성식이다. 전교식은 도장(道場)을 설립한 후 전교사가 수교인(受敎人)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의례, 입교식은 ‘청수’를 놓고 전교사가 입교문을 해설한 후 수교인이 ‘성주문(聖呪文)’을 3회 낭송하는 의례, 치성식은 수교인이 ‘치성축문(致誠祝文)’을 설명한 후 입교문과 치성축문을 불태우는 의례이다.⁵⁸⁾ 즉 수교인은 전교식을 통해 천도교의 진리 정보를 알게 되고, 입교식을 통해 교단 내에 위계와 연원과 주문을 알게 되며, 치성식을 통해 그 위계와 연원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이는 세 가지 의례가 각각 최제우 시기부터 존재한 포덕식, 입도식, 치제식의 연장임을 시사한다.

둘째, 역시 1906년 2월의 천도교 규략(天道敎 規略)이다. 이 규략에는 천도교 의례가 신분(身分)⁵⁹⁾, 정련(精鍊), 정자(正資), 입교의식, 서천의식(誓天儀式), 영세의식(永世儀式)으로 정리된다.⁶⁰⁾ 그 의례의 내용을 보면, 이 가운데 입교의식과 서천의식은 각각 이전의 입교식과 치성식의 변용에 해당된다. 그리고 영세의식에는 이전의 주문, 식고가 포함되었지만, 그 핵심이 최제우의 경신대각을 기념하는 것과 설법(성화회 강도)에 있었다.

셋째, 기념식의 정비와 제정이다. 1906년 4월에 중앙총부 임원과 서울의 교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최초의 천일기념식에는 분향, 청수와 함께 기념연설이 있었고, 그 동안에 기념실에 둥근 등(燈)이 매달렸다.⁶¹⁾ 이후 손병희는 1908년 5월에

서 청수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구장대에서 검이 최제우의 몸을 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

56) 「종령」 제18호, 1908.1.18.

57) 오지영, 앞의 책, 206쪽.

58) 「종령」 제3호, 1906.2.3; 조기주 편저, 『천도교종령집』,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1983, 16쪽. 입교문에서 최제우는 大先生, 최시형과 손병희는 先生이다. 그리고 최제우는 “侍布德”, 최시형은 “定布德”, 손병희는 “知布德”, 대교령은 “命布德”, 연원과 추천인은 “信布德”, 수교인은 “敎布德”의 역할이다. 성주문은 초학주문과 21자주문, 즉 “爲 天主願我情永世不忘萬事宜 至氣今至願爲大降侍 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이다. 치성축문은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일체의 선(善)에 따라 한울님을 영원히 모시고 수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전교식과 치성식에는 과례갱(果醴羹)/과시접(果匙楪)/과병반(果餅飯) 등이 사용되지만, 입교식에는 ‘청수’, 축대(燭臺) 2개, 예폐(禮幣)와 향로(香爐)만 진설된다.

59) 신분금 제도는 교당건축과 기타 비용을 충당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 내용은 각 사람이 식사 때마다 쌀 한 숟가락씩을, 工人의 경우에 1개월당 3일 요금을 떼는 것이다(「종령」 제4호, 1906. 2. 7.).

60) 「종령」 제11호, 1906.2.22.

「표 1」 1906년 2월 22일 천도교 의례 (종령 제11호)

의례 분류	의례의 절차와 내용
① 입교의식	東禮幣, 奠清水, 焚香, 讀入敎文, 聖呪文 三回讀, 清水奉香
② 서천의식	具祭器(豐簡無定規), 祭品向我設, 焚香, 讀致誠文, 敎傳受人相面配
③ 영세의식	念聖呪文, 食必謝告天德, 天日(四月五日)行祭儀, 侍日(日曜日)行侍式(奠清水焚香)念(天主聖師), 開聖化會講道

천일(양력 4월 5일)을 ‘대기념일’로, 제1·2대 교주의 기일(양력 3월 10일, 6월 2일)을 함께 지일(地日)로 제정하고, 의식에 제수와 분향 등의 구례(舊禮)를 폐지하고 청수와 등(燈)만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당일에 성화회(오전11시-12시)와 다과회(오후1시)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 1909년 10월에는 현재의 3대 기념일처럼 4월 5일(득도일)을 천일, 8월 14일(2대 승통일)을 지일, 12월 24일(제3대 승통일)을 인일(人日)로 개칭하였고, 12월 1일(천도교 선포일)을 교일(敎日), 3월 10일과 6월 2일을 각각 제1대기도일과 제2대기도일로 제정하였다.⁶²⁾ 단, 교일은 천지인기념과 등호(燈號)의 숫자를 다르게 하였다.⁶³⁾ 이를 통해 볼 때 천일기념식은 최시형 시기의 설법제와 인등식의 변용이었다고 사료된다.

넷째, 오관(五款) 제도이다. 대개 천도교는 1911년 3월 종규(宗規)로 오관을 확정했다고 이해된다.⁶⁴⁾ 그렇지만 1909년 10월에 성경신법(誠敬信法) 각각이 송주(誦呪)·청수·성미·교리강습에 대응되고, 1909년 11월에 주문·청수·성미·강습이 ‘宗徒의 進天一步을 위한 것’으로 표현되고, 1911년 8월에 청수·주문·성미·시일을 사관(四款)으로 표현되고, 1911년 12월에 오관이 표현된 것을 감안할 때,⁶⁵⁾ 오관은 1911년 초가 아니라 말경에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오관의 내용은 청수·주문·기도와 성미·시일인데, 이는 오관이 천도교의 전통적 의례 요소, 그리고 성미제⁶⁶⁾와 시일식이라는 새로운 의례 요소를 정비한 새로운 범주임

61) 「종령 제23호」 1906.4.25. 절차는 ‘① 대도주가 탁자 서쪽에서 분향, ② 참여자들 모두의 흡신경례(欠身敬禮), ③ 간사장(幹事長)의 청수 봉작(奉酌), ④ 3분간 기립하여 천주(天主)와 신성사(神聖師)를 염(念)함, ⑤ 다시 경례하고 의식을 마침, ⑥ 20분간 기립하여 기념설명을 들음’이었다.

62) 「종령 제6호」, 1908.5.1; 「종령 제19호」 1909.10.26.

63) 「종령 제22호(40호)」 1909년 11.17.

64) 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2006, 151쪽.

65) 「종령 제20호(38호)」 1909.10.29; 「종령 제21호(39호)」 1909.11.3; 「종령 제17호(88호)」 1911.8.17; 「종령 제21호(91호)」 1911.12.18; 「종령 제115호」 1916.4.1. 성경신법은 이미 「종령 別外」 1907.5.30(誠敬信法 四科)에 등장한다. 1911년 12월부터는 오관을 준수자에게 천인장(天認章), 그 기간이 3년 연속이면 천훈장(天勳章)을 수여함. 1916년에는 그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

66) 오지영, 앞의 책, 203-204쪽; 김정인, 「1910-25년간 천도교 세력의 동향과 민족운동」, 『한국사론』 32, 서울대 국사학과, 1994, 148-149쪽. 성미제는 일진회 세력의 출교 이후 재정적 차원에서 1907년에 만들어졌다. 1911년 일제의 압력으로 폐지되었으나 1914년부터 다시 무기명성미제(無記

을 의미한다. 오관은 무엇보다 남녀 노소가 간단히 행할 수 있는 수도방법으로 개발된 범주였고⁶⁷⁾, 1917년 「오관노래」 등을 통해 교인들에게 쉽게 보급될 수 있었다.⁶⁸⁾

다섯째, 오관의 한 요소이면서 정기적인 집단의례인 시일식이다. ‘시일식’ 용어는 「종령 제11호」의 영세의식 부분에 처음 나타난다. 초기의 시일식은 가족이 청수기(清水器)를 받들고 성주문(聖呪文)을 읽고 가장(家長)이 교리를 해설하고 시천주의 의미[侍天主之義]를 알려주는 가족적 단위의 의례였지만, 이후에 성화회와 결합된 시일성화회가 된다.⁶⁹⁾ 가령 성화회는 이후에 ‘시일예식’(1909년 2월), ‘시일성화회’(1910년 9월)로 표현되었다.⁷⁰⁾ 1906년 6월 이후부터 성화회는 천도교의 핵심으로 인식되어 각 부구(部區)에 조직되었다.⁷¹⁾ 당시 시일의 성화회식 절차는 ‘심고, 청수봉전, 주문, 설교’였고, 그 구성은 강장(講長) 1인, 강사 2인, 집사 4인, 강원이었다. 그리고 의례의 핵심은 교리에 능통하고 학식이 높은 청년 이상의 강사가 경전 구절을 교인들에게 해설하는 설교(說敎)에 있었다.⁷²⁾

1906년 12월, 성화회는 ‘분향, 청수봉전, 심고, 신리학 설교, 심고, 인계학 설교, 심고, 집사의 폐회 선언’의 절차로 개정되었다.⁷³⁾ 이 개정으로 성화회의 절차가 다채로워졌는데, 특히 설교가 2회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서 신리학 설교는 주로 경전 해설, 인계학 설교는 경전 해설을 토대로 근대적 지식을 전수하거나 혹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강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신리학과 인계학[또는 人性學]의 내용은 제1계(階)인 도사실(道師室)의 지침을 토대로 하였다.⁷⁴⁾ 그리고 1907년 11월에 만들어진 육임(六任)과 강사(講師) 등

名誠米制)가 실시되면서 완전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67) 「종령 제96호」 1912.1.20.

68) 元明濬, 「오관노래(五款歌)」, 『天道教會月報』 제7권, 1917, 444쪽. 「오관노래」의 시일 부분은 “여러우리 동님님네 시일례식 잘직히소”, “남녀가족 디동하고 근쳐동덕 셔리권히 한울한울 셔로 만나 레식당에 모셔안저”로 표현된다. 오관노래에는 당시의 시일식이 청수봉전, 정답상 위의 촛불 점화, 분향의 절차로 표현된다.

69) 「종령 제11호」 1906.2.22; 「종령 제29호」 1906.6.14.

70) 「종령 제9호(27호)」 1909.2.25; 「종령 제18호(60호)」 1910.9.1; 「종령 제21호(91호)」 1911.12.18. 1925년 6월 말에 성화회가 ‘시일예식’, 가정의 시일식이 ‘시일기도’라는 명칭으로 정착되었다 (「공함」 1925.6.30.).

71) 「종령 제29호」 1906.6.14; 「공함 제1호」, 1906.4.30; 「공함 제10호」 1906.6.15; 「侍日設會」, 『만세보』, 1906.6.17, 3면.

72) 「종령 제29호」 1906.6.14; 고건호, 「한말 신종교의 문명론」,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2, 62쪽. ‘念天念師-清水-呪文-說敎’

73) 「종령 제57호」 1906.12.6. ‘焚香奉清水-念天主 念聖師-神理學演解-念天主 念聖師-人界學演解-念天主 念聖師-執事 告上撤’

74) 「종령 제60호」 1906.12.26. 1906년 12월 당시 중앙총부(第3階)는 도사실(第1階)과 고문실(第2階)보다 하위였고, 도사의 역할은 ① 도덕주의, ② 자선사업, ③ 신리학연의(神理學演義), ④ 인성학발명(人性學發明), ⑤ 박애, ⑥ 돈행(敦行), ⑦ 천인합격(天人合格), ⑧ 성신일치(性身一致)였다. 고문은 ① 면목채신, ② 의식정리(儀式整理), ③ 사무감독 등을 관할하였다.

에 대한 규정을 보면, 육임은 덕이 있으면서 신리학(神理學)과 인계학(人界學)에 정통(精通)해야 했고, 강사는 진리에 연숙(煉熟)한 사람으로서 순회(巡廻)하면서 설교(說敎) 의무를 저야 했다.⁷⁵⁾ 이러한 내용들은 성화회에서 설교가 핵심임을 시사한다.

1922년 1월 7일 천도교주 박인호는 천도교대헌을 폐지하고 종헌(宗憲)·종규(宗規)를 공포하였지만⁷⁶⁾ 손병희의 사망 직후인 동년 6월 2일에 교주직에서 사퇴해야 했다. 그리고 1925년 4월 기념일의 재정비 이후에는 박인호의 승통기념일의 제외가 발미가 되어⁷⁷⁾ 오영창 계열과 최린 계열이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렇지만 박인호는 이미 종리사총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연기된 ‘천도교의절’(天道敎儀節)을 동년 6월 30일에 반포하도록 하였다. 당시 반포된 의례 항목들은 ‘① 입교예식, ② 통상심고, ③ 시일예식, ④ 기념예식, ⑤ 위령식, ⑥ 매일기도, ⑦ 시일기도, ⑧ 산업 급 사은기도, ⑨ 혼례식, ⑩ 상례, ⑪ 제례’ 등이었다.⁷⁸⁾ 이 개정안은 1946년 초반까지 유지되었는데 그 전반적인 특징은 과거 의례들을 종합하면서도 새로운 일상 의례들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1925년 6월 이후, 시일식은 ‘집례자의 예식절차 선포, 청수봉전, 심고(포덕천하 광제 창생의 대원으로 심고함), 21자주문 3회낭독, 설교, 천덕송합창(奏樂), 심고 후 폐식’ 순으로 진행되었다.⁷⁹⁾ 시일식의 절차에는 전통적인 의례 요소들도 유지되었지만, 이전과 달리 ‘천덕송합창’이라는 근대적 음악이 삽입되었다. 천덕송합창은 1908년 풍금의 확산 이후⁸⁰⁾, 1911년 12월 설교 전후에 ‘천덕사(天德詞)’가 삽입되는 등의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다.⁸¹⁾

1925년 6월 이후, 시일식 절차에서 또다른 변화는 앞서 언급한 두 부분의 설교가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설교의 중요성 상실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1906년 12월의 개정 이후부터 시일식은 ‘성경신법(誠敬信法)’에서 법(法), 즉 교리강습을 통해 지식 발달을 추구하는, 한울님(天)의 법칙을 준행하여 일하지 말고 교당에 모여 지식·수심정기·박애·언어 등 천도교의 새로운 종교 면목(面目)을 표현하는 시간으로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시일식은 ‘한울님이 부여하고 스승이 규정한 시일에 상학(上學)과 강도(講道)를

75) 『종령 제7호』 1907.11.29; 『종령 제78호』 1911. 6. 9. 도사는 교리에 관한 闡術과 講論을 담당함.

76) 『종령 제126호』 1922. 1.7. 박인호는 1922년에 교주직을 사퇴한 이후 1925년에 ‘선생’으로 공식 호칭되었다(『警告』 1925.6.27.).

77) 『警告』, 1925.11.14.(294-7쪽)

78) 『公函』, 1925.6.30.(289-94쪽).

79) 『공함』 1925.6.30(289-94쪽).

80) 『風琴教授協議』, 『大韓每日申報』, 1908.08.09.2면; 『風琴參觀』, 『皇城新聞』, 皇城新聞社, 1909. 04. 27.

81) 『종령 제91호』 1911.12.18.; 『六千教徒의 天德誦』, 『每日申報』, 1922.4.6. 3면; 김광순, “동학음악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15쪽; 『天宗新樂』, 『천도교회월보』 1, 천도교회월보사, 1910, 181-2쪽. 시일식에서 천덕송은 1925년부터 등장한다. 천덕송은 ‘턴덕송’(1907), ‘천종신악(天宗新樂, 1910)’, ‘천악(天樂, 1921)’의 연속이다. 이 가운데 ‘천종신악’은 사장조, 4/4박자의 오음음계로 단선율로 구성된 서양식 종교음악이다.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⁸²⁾, 교리강습은 천도교의 요무(要務)와 흥기(起色)로, 강사는 천도교의 영예(榮譽)로 인식되었다. 신입교인들은 청수, 주문, 성미 준수와 함께 시일예식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다.⁸³⁾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설교의 통합이 설교의 중요성 상실로 이해되기는 어렵다.

초기 성화회의의 경우를 포함하여, 시일식의 절차는 설교를 기준으로 할 때 ‘전통-근대-전통’의 구조를 지닌다.⁸⁴⁾ 가령 1925년 개정 절차에서 청수봉전, 심고, 21자주문 3회낭독 등은 전통에, 설교는 근대에, 설교 이후의 천덕송 합창(奏樂)과 심고는 전통의 복귀에 해당된다.⁸⁵⁾ 선행 연구에서 시일식에서 설교가 당시 근대적 종교로 인식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⁸⁶⁾, 또는 시일식이 전통적인 요소에 비해 근대적 요소를 강조한 의례로 이해되기도 한다.⁸⁷⁾ 그러나 시일식과 기독교의 직접적 연관 관계는 아직 불명확하며, 시일식 절차에서 전통적 요소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가령 설교 전후에 등장하는 청수 봉전, 심고, 주문 병송은 전통적 요소이며, 시일식은 이 요소들을 집단적으로 외부에 표출하는 의례였다.⁸⁸⁾ 이런 맥락에서 설교는 설법제나 구성제나 인등제에서 사용된 ‘설법’의 변용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한편, 1925년 4월 이후 천도교의 분열은 지속되었다. 오영창 계열은 동년 8월 14일에 교인대회(敎人大會)를 통해 현 교단간부의 퇴진과 교주제 부활을 결의하였고⁸⁹⁾, 최린 계열은 교주제 부활이 시대착오적이며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⁹⁰⁾ 양자의 갈등 속에서 권동진, 박준승, 이종린 등은 통일기성회(統一期成會)를 결성하였지만⁹¹⁾, 양자의 중재에 실패한 후 ‘교주제 부활’을 수용하고 동년 11월에 ‘천도교 중앙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교인대회 계열과 합동하였다.⁹²⁾ 중앙위원회는 1926년 1월에 ‘중앙총리원’으로 개칭

82) 朴庸漢, 「咸北鏡城郡敎區聖化會說敎」, 『천도교회월보』, 제3권, 1912, 187-8쪽; 朴思稷, 「侍日」, 『천도교회월보』, 제6년, 1916; 朴思稷, 「侍日(續)」, 『천도교회월보』, 제6년, 1916.

83) 『종령 제10호』 1908.6.10; 『종령 제15호』 1908.9.4; 『종령9호(제27호)』 1909년 2.25.

84) Ko Byoungchul, “The Religion of the Heavenly Way’s Sunday Service in Korea: Its Meaning and Structur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0. num.1. 2007.3. pp.33-49.

85) 천덕송합창도 근대에 등장한 의례 요소지만 설교와 달리 사회적 현안을 해석하는 부분이 없고, 경전 내용의 상기라는 측면에서 전통적 요소로도 이해된다.

86) 이용범, 「한국 신종교 의례와 민간신앙 의례」, 『신종교연구』 9, 한국신종교학회, 2003, 15쪽.

87) Young, Carl. “Embracing Modernity: Organizational and Ritual Reform in Ch’ondogyo, 1905-1910,” *Asian Studies Review* 29 (March 2005): 56.

88) 『종령 제21호(제39호)』 1909.11.3.

89) 『동아일보』 1925. 8. 17; 『조선일보』 1925.8.17.

90) 『동아일보』 1925. 8. 18; 8.20.

91) 『동아일보』 1925. 8. 21; 8.23.

92) 김정인, 「1910-25년간 천도교 세력의 동향과 민족운동」, 『한국사론』 32, 서울대 국사학과, 1994, 174-177쪽.

「표 2」 신·구파측 천도교의례 비교

	신파측(1925년 6월 30일)	구파측(1935년 경)
전체 의례 목록	① 入敎禮式, ② 通常心告, ③ 侍日禮式, ④ 紀念禮式, ⑤ (일반 殉道人的) 慰靈式, ⑥ 每日祈禱, ⑦ 侍日祈禱, ⑧ 産業及謝恩祈禱, ⑨ 婚禮式, ⑩ 喪禮, ⑪ (忌日) 祭禮	① 입교식, ② 교인증수여식, ③ 통상심고, ④ 시일예식, ⑤ 기념과 기도예식, ⑥ 위령식, ⑦ 매일기도, ⑧ 시일기도, ⑨ 사은기도, ⑩ 결혼식, ⑪ 喪禮, ⑫ 장례, ⑬ 祭禮, ⑭ 교인 실행 조목
侍日禮式	청수봉전, 심고(포덕천하 광제창생의 대원), 주문3회낭독, 說敎, 천덕송 합창(奏樂), 심고 후 폐식. * 일요일 오전 11시 교당 또는 종리원에서 거행. 집례자 1인을 정해서 예식 순차를 선포.	-청수봉전, 심고, 13자주문낭독(3회), 설교, 천덕송(주악합창), 심고, 폐식 * 오전11시, 교회당, 집례자와 강사 각 1명
紀念禮式 / 기념과 기념예식	청수봉전, 심고, 주문3회병송(3·7자주문), 집례의 式辭, 강사의 기념취지설명, 기념송 합창, 심고 후 폐식 * 오전 11시에 시작. 식장은 교당 또는 종리원. * 天日(4.5)=대신사득도일, 地日(8.14)=해월신사 承統日, 人日(12.24)=의암성사 承統日 * 기도일은 1-3대 교주의 生辰과 忌辰(10.28./3.10. 3.21./6.2, 4.8./5.19.(기도는 각자 집에서 묵욕제제한 후 오후 9시에 청수봉전과 묵념으로 함)	* 오전11시, 교회당, 집례 1명, 강사 약간명 -청수봉전, 심고(念天念師), 13자주문낭독(3회), 식사(式辭), 설교, 천덕송(주악합창, 기념에는 수도기념송, 기도에는 還元기도송), 심고(염천염사), 폐식 * 기념일: 천일(4.5.), 지일(8.14.), 인일(12.24.), 도일(1.18.)- 제1대의 득도일(天宗)과 제2(道宗)·3(敎宗)·4대(法宗) 承統日 * 생신기념일: 제1-4대 * 기도일: 제1-3대 殉道日

되었다. 최린 계열도 1925년 12월 25일 중앙과 지방의 총 의사기관인 법회(法會)를 조직하고 각 연원의 대표들을 고문격인 종법사(宗法師)에 임명하여 내부결속을 다졌다.⁹³⁾

1925년 이후에도 천도교는 분열과 합동을 거듭하였지만⁹⁴⁾, 의례의 차원에서 보면 신파든 구파든 유사한 의례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가령 양측 모두 성미[신파측·기도미]⁹⁵⁾, 강사 또는 교역자양성과 교리강습⁹⁶⁾, 심고와 오관 실행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⁹⁷⁾ 1925년 6월

93) 『조선일보』 1925.12.26.; 『동아일보』 1925.12.27.

94) 예산문화원, 『春菴 朴寅浩 研究』, 예산문화원, 1997. 59-60쪽. 1930년 12월 24일에 신파와 구파는 합동을 선포하였지만, 1932년 4월 4일 일본의 대동방주의(大東方主義에 대한 동참 여부를 둘러싸고 구파 제4세 교조 이하 권동진과 오세창이 이를 거부하면서 제2차 분열이 발생하였다.

95) 「공함 제3호」 1926.8.27; 「공함 제11호」 1926.9.10; 「공함 제12호」 1926.10.18; 「공함 제2호」 1927.1.24.

96) 「공함 제6호」 1928.7.7; 「공함 제5호」 1929.4.12.

97) 「道發 제4호」 1929.6.7; 「공함 제7호」 1929.9.30; 「大發 27호」 1935.4.30. 1935년에는 천덕송이 “한

의 개정안과 1935년의 구과측 천도교의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⁹⁸⁾

천도교 의례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은 1946년 3월에 이루어졌다.⁹⁹⁾ 이 개정은 1945년 10월 25일 전국임시대회에서 ‘삼천만 국민에 대한 반역자, 삼백만 교단 난법난도자’라는 명분으로 신과의 출교(黜敎)가 결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신과 측의 주요 인물인 김기전, 이돈화, 라상신 등이 월북한 이후, 구과 측과 신과 측은 갈등을 지속하다가 1948년 4월 4일에 합동하였다.¹⁰⁰⁾ 제1차 개정은 신과 측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의례 목록이 구과 측에 가깝다. 제2차 개정은 1968년 3월에 이루어졌고, 의례 목록에서 참회식이 사라졌고, 오관이 신설되었고, 참배식·제막식·경축경하식이 부록으로 신설되었다.¹⁰¹⁾ 제3차 개정은 2000년 9월에 이루어졌다.¹⁰²⁾ 제2차의 의례 목록과 비교해본다면, 수행의례 범주에 ‘수도과 실행요령, 도호수여식, 포덕이 첨가되었다. 기념식 및 각종 행사의례 범주에 신년합동 배하식이 첨가되었다. 일반 경조사의례 범주에 생일축하식, 성년식, 수연, 차례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경전과 예품 범주와 생활예절 범주가 별도로 신설되었다. 해방 이후 천도교 의례 목록의 변화는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의례 목록의 변화 속에서 시일식의 절차와 내용도 변화되었다. 1946년 3월(제1차 개정)에는 ‘청수봉전, 심고, 주문3회병독(13자), 경전봉독, 천덕송합창(奏樂), 설교, 천덕송합창(奏樂), 심고, 폐식’,¹⁰³⁾ 1968년 3월(제2차 개정)에는 ‘청수봉전, 심고(참례원 일동), 주문3회병독(13자), 경전봉독(경전중에서), 천덕송합창(참례원 일동), 설교(학교 덕망이 높은 분), 천덕송합창(참례원 일동), 심고, 폐식’,¹⁰⁴⁾ 그리고 2000년 9월(제3차 개정)에는 ‘개식, 청수봉전, 심고(참례원 일동), 주문3회병송, 경전봉독, 천덕송합창, 설교, 천덕송합창, 심고, 폐식’이었다. 제1차 개정에서는 주문이 21자주문에서 ‘13자주문’으로 바뀌었고, ‘경전봉독’이 삽입되었고, 설교 이전에 천덕송합창이 추가되었다. 제2차 개정에서는 제1차와 동일한 절차에 예복이 지정되었다.¹⁰⁵⁾ 제3차 개정에서는 제2차 개정시의 시일식 절차에 ‘개식’이 포함되었다. 현재 시일식의 절차는 제3차 개정의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된다.

울님의 恩德을 讚頌하는 노래이니 한울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는 말보다도 글보다도 頌과 노래가 큰 效果를 냅니다”라는 논리로 강조되었다.

98) 촌산지순, 『朝鮮の類似宗教』, 京城: 朝鮮總督府, 1935, 140-149쪽.

99) 『천도교의절』, 천도교총부경리원, 1946.

100) 예산문화원, 『春菴 朴寅浩 研究』, 예산문화원, 1997, 60쪽.

101) 『천도교의절』,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1968.

102) (제3차 개정)에는 ‘개식, 청수봉전, 심고(참례원 일동), 주문3회병송, 경전봉독, 천덕송합창, 설교, 천덕송합창, 심고, 폐식’이었다.

103) 『천도교의절』, 천도교총부경리원, 1946, 6, 10-11쪽.

104) 『천도교의절』,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1968, 18-19쪽.

105) 『천도교의절』, 천도교중앙총부, 2000, 30-1쪽.

「표 3」 해방 이후 의례 목록의 변용

	2000년 9월 개정(3차)	1946년 3월 개정(1차)	1968년 3월 개정(2차)
입교 의례	입교식(입교식 심고, 誓天文) 복교식(복교식 심고, 懺悔文)	① 入教式 ③ 復教式, *② 懺悔式	① 입교식(입교식 심고, 誓天文) ② 복교식(복교식 심고, 懺悔文)
	심고: 식고, 통상심고, 의식심고	④X 通常心告	③ 심고: 통상심고(식사, 수면, 외출, 성미 들 때), 의식심고
수행 의례	오관: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시일기도, 특별기도) 수도와 실행요령: 경전봉독, 수련, 4계명, 8수칙, 10무천, 입사실천10개조 도호수여식: 도호수여식, 특별기도와 篇工	⑤ 侍日禮式, ⑧ 每日祈禱, ⑨ 侍日祈禱	④ 오관: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시일 기도, 특별기도)
	포덕		
	기념식 -득도 및 승통 기념 -현도 및 혁명 기념	⑥-1. 紀念式 -천일, 지일, 인일, 도일	⑤ 기념식 -득도 및 승통기념(천·지·인·도일) -현도 및 혁명기념식(현도, 3·1절, 동학혁명)
	탄신 및 환원 기도식 -탄신기도식 -순도 및 환원 기도식	⑥-2. 慶祝式(1-4대 탄일) ⑥-3. 기도식(祈禱式) -1-2대 순도, 3-4대 환원 일	⑥ 탄신 및 환원기도식 -탄신기도식(1-4대 탄신일) -순도 및 환원 기도식(1-2대 순도, 3-4대 환원)
기념식 및 각종 행사 의례	사은기도식 -감사기도: 가정적 -봉고기도: 교회적 (별도의 봉고문)	⑩ 사은기도(謝恩祈禱)	⑦ 사은기도식 -감사기도: 가정적 -봉고기도: 교회적 (별도의 봉고문)
	위령식(위령식 심고, 위령문) -대신사 및 순도선열 합동위령식	⑦ 위령식(慰靈式)	⑧ 위령식(위령식 심고, 위령문)
	신년합동 배하식		
	참례식 제막식: 동상제막식, 기념비·유허비·묘비 제막식		⑫ 참배식 ⑬ 제막식 : 동상제막식, 기념비·유허비·묘비 제막식
	경축식: 공사기공식, 교당준공식, 교당현판식, 개강식 및 졸업식, 도첩 및 훈장·표창배 수여식		부록 ⑭ 경축경하식 : 교당낙성식, 공사기공식, 회갑식, 개강식 및 졸업식, 훈장 및 도첩·상장수여식, 신년합동 배하식

「표 3」 계속

2000년 9월 개정(3차)		1946년 3월 개정(1차)	1968년 3월 개정(2차)
생일축하식			
성년식			
일반 경조사 의례	혼례: 약혼식, 혼인식	⑪婚禮	⑨혼례: 약혼식, 결혼식
	수연(壽宴)		
	상례: 收屍 및 환원기도식, 弔問과 기도식, 입관식, 발인식, 영결식, 하관식, 사진봉안식, 喪期 및 脫喪	⑫喪禮, ⑬葬禮	⑩상례: 입관식, 발인식, 영결식, 하관식
	제례	⑭祭禮	⑪제례(제례식 심고, 추모사)
차례			
경전과 예품	경전, 공을기·공을장, 스승님의 존영, 예복, 염주, 청수기·청수상, 기타		
생활 예절	가정생활 예절, 일상생활 규범		

IV. 천도교 의례의 특성

최재우 시기의 주된 의례는 식고, 출고, 입고, 49일기도식, 포덕식, 입도식, 치제식, 천제, 제수식, 개접 등이었다. 그리고 주된 의례 요소는 주문, 부적, 청수, 검가 등이었다. 가령 1863년 유림들의 통문에서 동학은 황건의 부적과 정화수를 답습한 무당처럼 묘사된다.¹⁰⁶⁾ 또한 『비변사등록』에 의하면, 1863년 11월 영남 지방의 각 주(州)와 군(郡)마다 밤이면 주문이 그치지 않는 곳이 없었고, 칼춤 등으로 평화로운 때에 난(亂)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한다.¹⁰⁷⁾ 최시형은 이전의 식고, 출고, 입고, 49일기도식, 포덕식, 입도식, 치제식, 천제 등의 의례 문화를 계승하였다. 그렇지만 동시에 당시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탄신제, 기제, 설법제, 구성제, 인등제 등의 새로운 집단 의례 문화를 형성하였다. 최시형 시기의 의례에서 주된 요소는, 비록 이전의 주문, 부적, 청수, 검가도 보이지만, 무엇보다 설법이었다.

손병희 이후 시기에는 49일기도식, 전교식, 입교[의]식, 치성식 또는 서천의식, 영세의식

106) 愚山書院, 癸亥 九月 十三日, 通文; 道南書院 癸亥 十二月 初一日, 通文(윤석산, 2006, 284-285쪽 재인용)

107) 『備邊司謄錄』 哲宗 十四年 十二月 二十日條; 『高宗實錄』 元年 十二月 二十日 壬辰; 『承政院日記』 癸亥 十二月 二十一條; 『右捕廳謄錄』 下 癸亥 十二月 二十一日; 『日省錄』 高宗元年 甲子 二月 二十九日; 『日省錄』 高宗元年 甲子 三月 二日 壬寅. (윤석산, 2006, 286-300쪽 재인용)

등의 의례가 있었다. 그렇지만 주된 의례는 각종 기념식과 오관, 특히 시일식이었다. 기념식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함께 도통 계승의 정통성을 재차 확인하는 의례였다. 오관은 전통적 의례 요소들과 새로운 의례 요소를 결합시킨 후, 교인들에게 용이하게 확산시키기 위해 개발된 범주였다. 특히 시일식은 전통적 의례 요소들을 포함시키면서 근대적 종교로서 천도교의 위상을 정립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설교를 핵심으로 하는 의례이다.

각 시기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한국 신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유불선과의 관련성이다.¹⁰⁸⁾ 이미 최제우의 생애는 천도교가 출발부터 유불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영남 유림의 가문 출신, 법술 공부, 약 2년간의 무예 수련, 1855년 3월 금강산 유점사의 노승에게 을묘천서를 받았다는 점, 1856년과 1858년 천상산(天上山)의 49일기도 등이 그것이다.¹⁰⁹⁾ 여기서 법술은 수련도교에서 강조되는 방술(方術)을 의미하고, 무예도 도교 수련의 일종이다. 또한 출신 가문과 노승과의 만남, 을묘천서의 내용을 유교나 불교의 문리(文理)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고백, 그리고 49일 기도 등은 유교 및 불교와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1860년 4월의 경신대각 과정에 등장하는 상제, 선약(仙藥)이라는 태극이나 궁궁(弓弓) 형태의 영부, 경신대각 이후 약 1년간 치성 또는 수련을 통해 도달했다는 ‘무불자연(無不自然)’의 경지, 수련 도중에 저술한 「용담가」, 「처사가」, 「교훈가」, 「안심가」 등에서도 유불선의 관련성이 드러난다.¹¹⁰⁾ 또한 1862년 9월에 체포되었을 때, 최제우는 경주 감영(監營)의 영장(營將)이 자신의 행위를 술가(術家), 치병(醫), 점술(筮), 무(巫)와 연관시키자 노여워하며 『중용』의 첫 구절로 응수하였다고 한다.¹¹¹⁾

특히 천도교 의례의 주요 요소인 21자주문이 장생과 치병의 효력을 지녔다는 인식은 천도교와 도교의 관련성을 시사한다.¹¹²⁾ 신(信)·경(敬)·성(誠)을 토대로 만들어진 식고(食告)와 출고(出必告)·입고(入必告) 등의 의례는 유교의 효 사상을 기본으로 한 것이었다.¹¹³⁾ 또

108) 박맹수, 「동학과 전통종교와의 교섭-최제우·최시형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총서』 1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8 참조.

109) 『수운행록』, 178-179쪽. 최제우는 경신대각 이전에 제자백가서, 불교, 음양복술, 역수(易數), 선도, 기독교 등을 공부했다고 한다(윤석산 역주, 『초기동학의 역사』, 신서원, 2000, 16-17쪽). 한편, 을묘천서가 17세기에 유입된 『천주실의』로도 이해된다(김용옥, 『도올심득 동경대전』, 통나무, 2004).

110) 『도원기서』, 11-12쪽; 『천도교경전』, 「용담유사」, 「교훈가」, 「안심가」, 「용담가」. 가령 오만년의 운수(「용담가」), 입도자가 무위이화(無爲而化)로 지상신선이 되고 천운(天運)의 순환으로 유도(儒道)·불도(佛道)의 운(運)이 끝났다는 내용과 오행(五行)으로 태어나서 삼강오륜을 따라 살았다는 내용(「교훈가」), 부모 없는 혼령과 혼백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오륜을 벗어난 것이라는 내용(「권학가」) 등이다.

111) 『수운행록』, 180쪽.

112) 이능화는 최제우가 ‘장각(張角)의 옛 지모(智謀)’를 살렸다고 평가하면서 천도교가 도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서술한다(이능화 輯述, 이종은 역주, 『조선도교사』, 보성문화사, 2000, 324쪽).

한 입도식은 제단을 만들고 앞에 꿇어 앉아 축문을 읽고 절을 하고 주문을 읽는, 즉 기존의 山祭, 佛供, 廟祭, 忌祭 등과 유사한 형식으로 최시형 말년까지 이어졌다고 한다.¹¹⁴⁾ 그렇지만 입도식에서 읽는 축문(祝文)에는 스승의 도움과 상제의 덕, 즉 ‘개재지은(蓋載之恩)’과 조임지덕(照臨之德)’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신(信)·경(敬)·성(誠)을 기본(道理)으로 삼고 있다. 또한 1863년 7월에 최시형에게 자신의 가르침[道]이 ‘유·불·선 삼도를 겸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불·선에 대한 글공부와 함께 제사에 소와 양을 사용하는 유교, 도량을 청결히 하고 손에 염주를 잡고 머리에 흰 남(衲)을 쓰고 흰 쌀과 등불을 사용하는 불교, 용모가 바뀌고 채색된 의관을 입고 제사에 폐백을 사용하고 예주(醴酒)를 올리는 도교가 있으며 때에 따라 합당한 제사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¹¹⁵⁾

그러나 동시에 천도교는 유불선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가령 최제우는 “나는 儒도 아니요 佛도 아니요 仙도 아니요 그 全體의 原理를 사랑하오”라고, “이 時代는 佛法이나 儒法이나 其他 모든 篤은 것으로는 到底히 새 人生을 거느려 나갈 수 없는 時代이지요. 다만 要할 것은 죽은 송장의 속에서 새로 靈魂을 불러일으킬 만한 無極之運을 把持하고 新天 新地 新人을 開闢하여야 하지요”라고 주장하였다.¹¹⁶⁾

이런 경향은 최시형 시기를 거쳐 손병희 시기에도 지속된다. 가령 천도교에서 파생된 유교와 도교(仙)와 불교가 각각 자신(身)과 신(神)과 ‘불성[性]’에 치우쳤는데 결국 “儒之身도 在吾之道하고 仙之神도 在吾之道하고 佛之性도 在吾之道”하다는 주장¹¹⁷⁾, 그리고 천도교가 “儒의 身, 佛의 覺, 仙의 性을 總管領하야”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¹¹⁸⁾ 나아가 천도교가 단순히 유불선의 합일(合一)이 아니라 “天道其中에 儒佛仙의 眞原이 具在함이오 三道의 合一로 因하야 天道敎가 成立됨은 안이니라”라는 주장도 등장한다.¹¹⁹⁾ 이런 주장은 1863년 최제우가 최시형에게 설명한 “吾道는 非儒非佛非仙이니 儒의 身과 佛의 性과 仙의 氣가 吾道中에 自在”한 것에서 이미 보인다.¹²⁰⁾ 이는 천도교는 유불선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종교라는 논리이다.

113) 『도원기서』, 14쪽.

114) 오지영, 앞의 책, 206쪽.

115) 『수운행록』, 181쪽; 『도원기서』, 24-26쪽; 『천도교회사』 「천통」. 「도원서기」에서 유도는 ‘投筆成字 開口唱韻 用祭牛羊’, 불도는 ‘淨潔道場 手執念珠 頭着白衲 白米引燈’, 선도는 ‘容貌幻態 衣冠服色 祭祀幣帛 獻酒醴酒’로 표현된다. 한편, 최시형의 도통전수 기록은 「水雲行錄」에 없다. 이는 이후에 최시형이 삽입한 것으로 이해된다(박맹수, 앞의 글, 95쪽).

116)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33-34쪽(‘은적암’ 부분). 최제우가 집필한 경전에도 유불선과의 차별화 내용이 다수 서술되어 있다. 가령 「수덕문」은 천도교가 유교와 다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17) 朴明善, 「儒佛仙合一解」, 『天道教會月報』 창간호년, 天道教會月報社, 1910.1., 338-341쪽.

118) 尹吉鎬, 「吾道는儒佛仙合一한宗教라」, 『天道教會月報』 제3년, 天道教會月報社, 1912(3), 482쪽.

119) 崔益煥, 「天道敎와儒佛仙三道及列敎」, 『天道教會月報』 제6년, 天道教會月報社, 1916(1), 769쪽.

120) 박인호, 앞의 책, 38쪽.

한편, 천도교는 초기부터 서학 또는 천주학과 차별화 경향을 보였다. 가령 「안심가」에는 서학(西學)을 하는 사람 가운데 명인(名人)이 없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그리고 「동학론」에는 서도(西道)와 천주학(天主學)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표현되어 있다.¹²¹⁾ 또한 이미 최제우는 신유포덕 당시에 천령강림(天靈降臨)의 소문을 듣고 온 선비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이 ‘양학(洋學)’과 다른 ‘무위이화(無爲而化)의 도’라고 설명하였다.¹²²⁾ 그러나 손병희 시기에는 이런 경향이 다소 약화되었다. 손병희는 천도교를 근대적 종교의 자리에 위치시키기 위해 중앙의 조직과 그에 따른 각 부서를 과거의 연비보다 우선시하였고, 종지를 인내천으로 확립시키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다.¹²³⁾ 그리고 전통적 의례 요소와 근대적 의례 요소를 오관이라는 의례 범주로 담아냈고, 정기적인 집단의례로서 시일식이라는 의례를 새로 개발하였다. 특히 시일식에는 기독교의 의례처럼 설교가 중심이었고, 설교의 방향도 경전 구절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천덕송이라는 새로운 의례 요소도 삽입되었다.¹²⁴⁾ 당시 기독교가 근대적 종교의 모델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천도교 의례의 변화 이면에 기독교 의례가 모델로 작용했다는 추측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천도교에서 설교는 전혀 새로운 의례 요소라기보다 최시형 시기부터 존재했던 설법의 변형이기도 했다.

천도교 의례는 손병희 사후의 교단 분열 시기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었으며, 이 때 일상 의례가 의례 범주에 포함되었다. 비록 일제시기에 천도교 신파와 구파 측의 의례 목록이 달랐지만, 기념식이나 오관, 특히 시일식 등의 주요 의례와 그 의례 요소들의 내용은 동일하였다. 이러한 의례의 유사성은 천도교 구파와 신파가 분열되다가도 다시 통합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으로 이해된다.

해방 이후에 개정된 천도교 의례 목록은 구파측의 의례 목록을 계승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만, 천도교 의례가 신파 측출의 과정에서 개정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측면에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방 이후 천도교 의례의 특징은 무엇보다 ‘오관’을 의례 목록으로 내세워 주요 기본 의례들을 포함시켰다는 점, 그리고 ‘일반 경조사 의례’의 목록이 세분화되고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후자는 의례를 통해 신자들이 변화하는 일상에서 중요한 기점으로 여기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려는 전략적 차원으로

121) 『수운행록』, 179-180쪽. 1861년 12월경부터 은적암(隱跡庵; 德密庵)에서 1962년 3월까지 「道修詞」, 「東學論(論學問)」, 「勸學歌」를 지었고, 다시 경주 근교에서 6월경에 「修德文」과 「夢中歌」를 지었다.

122) 『동경대전』, 「논학문」(29-31쪽).

123) 인내천의 종지화가 侍天主, 心卽天, 人是天을 계승한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동학초기의 생생한 시천주 체험과 강렬한 신앙의 모습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김용휘, 「한말 동학의 천도교 개편과 인내천 교리화의 성격」, 『한국사상사학』 25, 한국사상사학회, 2005, 211-212쪽.)

124) 현재까지 천도교인에게 시일식은 집단기도와 교화를 통해 신앙을 깊게 하고 교인들이 교제하며 이를 통해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의례로 이해된다(『천도교의절』, 천도교중앙총부, 2000, 30쪽.).

보인다. 또한 2000년 9월에 새롭게 등장한 ‘생활예절’ 부분도 신자들의 일상을 담당하려는 전략적 차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V. 나오면서

천도교의 의례는 최제우와 최시형 시기와 그리고 손병희 이후의 시기에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최제우가 교세 관리를 위해 의례를 만들고 활용했다면, 최시형은 교권의 장악과 천도교인의 결집력을 위해 의례를 변용하였다. 그렇지만 천도교의 근대화 또는 문명화를 지향했던 손병희는 천도교의 의례를 당시의 근대적 상황에 따라 변용하면서 교권 장악과 교세 확장을 도모하였다. 가령 전통적 의례 요소들을 취사선택하여 오관에 포함시켰고, 그 가운데 시일식을 정기적인 집단 의례로 만들어서 신자들의 의식 변화와 결집을 유도하였다.

천도교 교리와 의례에는 유불선 및 기독교와의 관련성이 보인다. 이 때 관련성에는 수용과 비판의 측면이 모두 포함된다. 수용이나 비판은 곧 자기 정체성의 확립 과정이기 때문이다. 유불선과의 관련성 담론은 한국 신종교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 신종교들에서는 ‘유불선 합일’에 대한 담론들이 존재한다. 물론 유불선의 종합인가, 유불선의 포함인가 등에 따라 유불선 합일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존재한다. 또한 유불선의 합일 담론은 천도교를 포함한 한국 신종교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다른 종교를 수용하는 일종의 회통(會通) 논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천도교의 경우처럼 한국 신종교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표면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한 차별성이 강조된다.

천도교 의례에서 유불선의 관련성은 49일기도 또는 치성식, 시일식의 설교, 주문의 효력에 대한 신앙과 수련 문화, 청수에 대한 신앙과 행위, 천인합일을 지향한 수련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례는 한국 신종교의 의례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가령 현재도 어떤 신종교에서는 병자에게 부적을 만들어주거나, 부적의 재를 먹게 하거나, 주문으로 악귀를 물리친다거나, 산제를 지낸다.

또한 천도교 의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주문 중심의 수련문화도 한국 신종교 의례에서 전형적인 모습이다. 천도교 의례 가운데 천제에서 나타나는 검가(劍歌)를 병행한 목검 수련 문화도 현재의 수련 문화에서 간혹 나타난다. 특히 천도교가 시일식이라는 정기의례를 신설하여 정착시켰듯이, 한국 신종교들도 각기 정기의례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천도교 의례는 한국 신종교 의례 문화사에서 일종의 모델이라는 위상을 차지한다. 앞으로 한국 신종교의 의례 문화사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들에게 먼저 천도교 의례에 대한 천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동경대전』, 『용담유사』, 『日省錄』, 『조선왕조실록』, 『천도교회월보』, 『備邊司謄錄』, 『만세보』, 『大韓每日申報』, 『皇城新聞』, 『公函』, 『警告』, 『道發』, 『大發』, 『동아일보』, 『조선일보』
- Ko Byoungchul, "The Religion of the Heavenly Way's Sunday Service in Korea: Its Meaning and Structur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10. num.1. 2007.3.
- 大先生事蹟.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7. 사운연구소. 1996
- 侍天敎宗繹史(1915),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9. 사운연구소. 1996
- 崔先生文集道源記書.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7. 사운연구소. 1996
- 『天道敎儀節』, 천도교중앙총부. 2000.
- 『天道敎儀節』,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1968
- 『天道敎儀節』, 천도교총부경리원. 1946
- 天道敎會史草稿. 『동학사상자료집』 1(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아세아문화사. 1979
- 강돈구, 「종교의례 연구의 경향과 과제」, 『종교연구』 17. 1999
- 계봉우, 「꿈속의 꿈」, 『北愚 桂奉瑀 資料集』 (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6
- 고건호, 「한말 신종교의 문명론」,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2
- _____. 「동학의 세계관에 나타난 전통과 근대의 변증법: '근대'의 경험과 동학·천도교」, 『동학학보』 9. 2005
- _____. 「천도교 개신기 '종교'로서의 자기 인식」, 『종교연구』 38. 한국종교학회. 2005
- 김상기, 「자료: 水雲行錄-원제 수운문집-」, 『아세아연구』 7-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4
- 김용옥, 『도올심득 동경대전』, 통나무. 2004
- 김용휘, 「한말 동학의 천도교 개편과 인내전 교리화의 성격」, 『한국사상사학』 25. 한국사상사학회. 2005
- 김정인, 「1910-25년간 천도교 세력의 동향과 민족운동」, 『한국사론』 32. 1994
- 박광수, 「한국 신종교(천도교, 증산교, 원불교)에 나타난 신화, 상징, 의례 체계의 상관성에 관한 비교연구」, 『종교연구』 26. 한국종교학회. 2002
- 박맹수, 「崔時亨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6
- _____. 「동학과 전통종교와의 교섭: 최제우·최시형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총서』 1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 _____. 「崔時亨의 宗教史的 位置」, 『한국종교사연구』 5. 한국종교사학회. 1997
- 박영학, 『동학운동의 공시구조』, 나남. 1990
- 박인호, 『천도교서』, 천도교중앙총부. 1921
- 박정동, 『侍天敎宗繹史』, 侍天敎本部. 1915
- 연갑수, 「이필제 연구」, 『동학학보』 6. 동학학회. 2003

- 예산문화원. 『春菴 朴寅浩 研究』. 예산문화원. 1997
- 오지영. 『동학사』. 대광문화사. 2002
- 윤석산 역주. 『초기동학의 역사』. 신서원. 2000
- 윤석산 주해. 『동경대전』. 동학사. 1996
- 윤석산. 『수운 최제우』. 모시는사람들. 2006
- 이능화 輯述, 이중은 역주. 『조선도교사』. 보성문화사. 2000
- 이돈화. 『천도교창건사』. 천도교중앙종리원. 1933
- 이선영. 「천도교 수행의 실제 - 呪文수련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14. 한국신종교학회. 2006
- 이용범. 「한국 신종교 의례와 민간신앙 의례」. 『신종교연구』 9. 한국신종교학회. 2003
- 임운길. 「東學·天道敎의 의례와 수행」. 『동학연구』 4-1. 한국동학학회. 1999
- 정혜정. 「동학 의례와 守心正氣 수행의 儒·佛的 이해」. 『한국사상과 문화』 34.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 조기주 편저. 『천도교종령집』.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1983
- 천도교중앙총부 교서편찬위원회. 『천도교약사』. 천도교중앙총부출판부. 2006
- 촌산지순. 『朝鮮의類似宗教』. 京城: 朝鮮總督府. 1935
- 최기영. 「한말 동학의 천도교로의 개편에 관한 검토」. 『한국학보』 20-3. 일지사. 1994
- 최기영·박맹수 편. 『한말 천도교 자료집』 1/2. 국학자료원. 1997
- 최유현. 「侍天敎歷史」. 侍天敎總部. 1920(한국학문헌연구소 편. 『동학사상자료집』 3. 아세아문화사. 1979.)
- 표영삼. 『동학 1』. 통나무. 2004
- _____. 『동학 2』. 통나무. 2005

원고접수: 2006년 5월 14일 1차심사: 6월 3일 게재승인일: 6월 13일

연구자 소개: 고병철

① 전공: 종교학 / 소속: 한국학중앙연구원

② 관심영역: 한국종교사, 종교교육, 종교이론과 의례, 현대종교문화

③ 주요논저: 『한국 종교교단 연구 II』, 「한국의 종교교육」, 「만주국의 '황도낙토' 구상과 종교」

④ E-mail: 03250@daum.net

Abstract

The Transformation and Characters of Religion of the Heavenly Way's Rituals: Focus on Sunday Service

Ko, Byoung-chul

Researcher,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transformation and character of Cheondogyo (Religion of the Heavenly Way)'s rituals. And through the process of this research, I tried to elucidate this place in history of new religions' ritual in Korea. In the history of Religion of the Heavenly Way' rituals, first stage was before appearance of Religion of the Heavenly Way(founded in late 1905, *Daegocheonba*), a continuation of Donghak (Eastern Learning) that was a religion and a social movement formed in Korea in the middle of the nineteenth century. Second stage was before 1945 (Independence Day of Korea), and third stage was after 1945.

To achieve these purposes, in chapter 2, in the title of 'the traditional formation of ritual' I reviewed what rituals were formed in the period of Choe Jeu (1824-64, Great Master; *Daesinsa*) and Choe Sihyeong (1827-98, Master; *Sinsa*).

In chapter 3, 'the modern reformation of ritual', I reviewed how Son Byeonghi (1861-1922, Revered Teacher; *Seongsu*) carried out a radical reformation of rituals. Also, I examined contents of reformed rituals in the period of Pak Inho, who put various rituals together, and after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The chapter 4, in the title of 'the character of Religion of the Heavenly Way', I elucidated Religion of the Heavenly Way' place in history of new religions' ritual in Korea. I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of the Heavenly Way and other religious traditions; Buddhism, Taoism and Confucianism as well as Christianity. And I examined the history of Sunday service (*Siilsik*)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 of ritual and everyday life of believers after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Through this writing, I want many people to interest in Religion of the Heavenly Way' rituals including rituals of new religions in Korea.

Key words : Religion of the Heavenly Way, Transformation of ritual, Character of ritual,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Christianity, Sunday service (*Siilsik*), Everyday life.